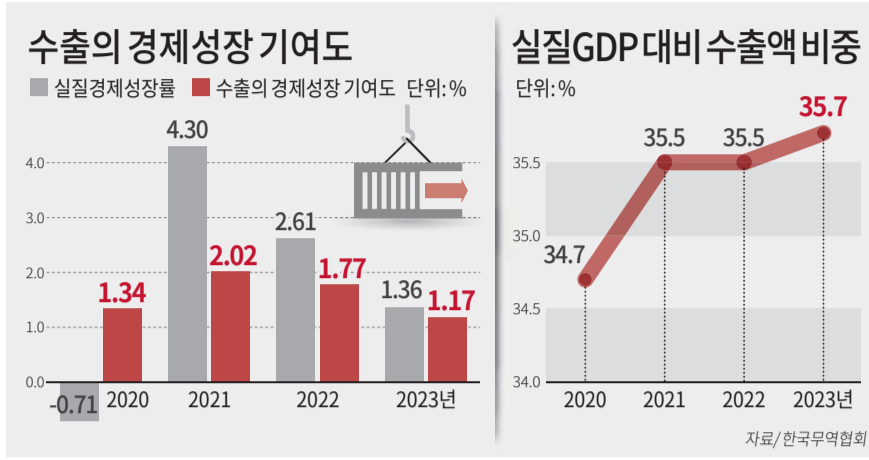


“생산·고용창출 효과까지”... ‘수출’ 韓 경제성장 86% 기여

무협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경제성장률 1.36% 중 수출 1.17% GDP 대비 2020년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23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7%포인트로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1.36%)의 86.1%를 수출이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에 달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02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해 지난해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총수출액 대비 생산유발액으로 산출한 생산유발도는 1.94배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13억달러

로, 2022년 대비 21.7% 증가했고, 생산유발도 역시 평균치(1.9배)를 크게 상회하는 2.5배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64.6%로 2022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우리나라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으나, 지난해 자동차의 부가가치 유발액(659억달러)이 반도체(622억달러)를 상회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42만명 중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취업자는 483만명으

로, 전체 취업자의 17.0%였다. 지난해 수출 100만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은 7.6명으로,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의 기록(7.3명)을 넘어섰다.

조이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 일반목적용 기계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호조로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의 보루인 수출의 고도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에 100억 투입

10개 지자체와 지원사업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자동차 중소기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25일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별 자동차업계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

으로써 지역 전반에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업계의 상생협력 대상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 완화, 근로자 복지, 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해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9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35세~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4060 재취업률 ↑

하반기 6월 교육생 585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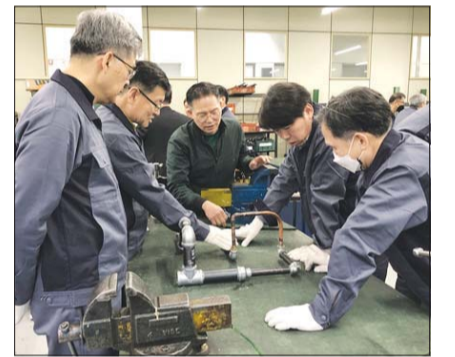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친 4060세대의 재취업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은 최근 3년(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이 각각 76.8%, 80.0%, 73.3%의 취업률을 기록해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기 계열 취업률도 각각 66.2%, 62.5%, 66.9%를 기록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미취업 중장년을 대상으로 약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해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한다. 수업료나 실습재료비 등 교육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그간 입학이 제한됐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을



4060 교육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신중년특화과정 공조냉동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소지한 비영리단체 대표자에게까지 입학 허용한다. 사업 기간과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폴리텍대학은 이달 3일부터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6개월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6개 캠퍼스에서 각 20~25명씩 전체 585명이다. 하반기 3개월 교육생(960명) 모집 일정은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폴리텍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소부장 투자연계 사업 7848억 투자유치

지난해 3985억 대비 2배 증가 민간투자 유치 최대실적 기록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올해 216개 소부장 기업이 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총 7848억원을 투자유치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985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금액이다.

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투자기관의 선행 투자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유치

를 위해 설명회, 벤처캐피탈 매칭 행사 등을 개최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IR 컨설팅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업화지원 연구개발을 최대 5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했다. 그 결과 24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록했고, 그 규모도 3650억원에 달했다. 별도 트랙 신설 전인 2023년도에 비해 기업 수는 3개에서 24개로 8배, 투자유치금액은 330억원에서 3650억원으로 11배 증가해 신규 트랙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주요 수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60개) 1765억원, 전기·전자(63개) 2972억원, 바이오·의료(43개) 1616억원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100억원 이상 투자로만 한정하면 투자금 3650억원 중 81%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첨단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몰렸다. 실례로 GPU를 대체할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을 보유한 리벨리온 사는 이 사업을 통해 175억원을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할 집적회로(IC)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우유 원가 절감, 낙농가업계 협력 절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9회 밀크&치즈페스티벌’ 참석 11일부터 새 원유 가격 협상 시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밀크&치즈페스티벌’에 참석해 국산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낙농가에게 원가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 낙농진흥회의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예정돼 있고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9회 밀크&치즈페스티벌’에 참석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낙농가에게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와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날 송 장관의 방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달부터 진행될 원유가격과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에 앞서, 낙농산

업 미래를 위한 협상을 위해서는 낙농가 및 유(乳)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가래떡 치즈 꼬치 만들기’와 ‘우유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우유·치즈로 만든 다양한 국산 유제품을 시식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오는 11일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낙농가 및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협상은 한달가량 이어진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녹색전환 위한 스마트기술 교류 앞장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열린 이후 정례화돼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가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내의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이 전 세계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 ㈜아모그린텍(㈜리보테크) ㈜포어시스템에서는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세종=김연세 기자